

도열병 발생 원인과 방제 대책

임실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

1 현황

- 최근 돌발기상으로 2020년부터 앞도열병 및 목도열병 발생 증가
- 도열병에 약한(감수성) 신동진 단일 품종 재배(비중 63%)로 병해충 관리에 취약

2 발생원인(발병3요소)

- 곰팡이성 병원균: 피리쿨라리아 오리자(*Pyricularia oryzae*)
 - 2011년도 이후 전라북도 우점 도열병균 KJ-201레이스 출현
- 품종: 신동진(KJ-201레이스에 감수성)
- 환경 및 관리조건: 20 ~ 25℃, 상대습도 80%이상, 질소과비, 장기간 중간 물떼기 등



3 방제 방법

- 신동진 대체 품종 재배, 단일 품종 재배를 지양하고 2~3개 품종 분산재배
- 질소과비 및 늦은 이앙을 삼가고 1모작 재배
 - ※ 반드시 2모작을 해야할 경우 동일한 화분과 재배 지양
- 논 주변 잡초(바랭이, 강아지풀, 돌피 등) 상시 제거
- 수확을 일찍 실시한 논(그루터기에서 벼가 재생된 논), 도열병에 감염된 벼짚을 썰어 넣은 논은 경운 후 3주 이상 담수 실시
- 예방적 방제 실시
 - 앞도열병 6월 하 ~ 7월 중, 목도열병 출수기 ~ 20일내 2회 연속 경엽 살포
- 앞도열병 발생지는 출수 후 5 ~ 7일 간격 최소 2회 이상 약제 살포
- 초기 목도열병 발견한 경우 트리아졸, 트리사이클라졸계 약제를 2회 이상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살포
 - ※ 오전 10시 이전 방제 실시, 발병지는 항공방제보다 광역방제 추천
- 출수 전 규산질 액제 2회 이상 경엽 살포

4 기타 사항

- 2021년 도열병균 월동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2022년도 대발생 위험 존재
- 공동방제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, 상시예찰로 초기 발병시 추가방제 실시

5 관련 사진



7월 상~중순 잎도열병(위), 8월 하 ~ 9월 상 목도열병(아래) 모습